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멈춰 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쳐 흰 공이 움직였다고 하자. 흙은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친 사건과 흰 공이 움직인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하고,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서 나타나야 하며,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적 결합이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이 움직여 부딪친다면, 같은 식으로 공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리드는 위 사례와 같이 흙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오직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행위자 인과 이론에서 리드는 원인을 '양면적 능력'을 지녔으며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이다.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쳤을 때 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 없다.

경험론자인 리드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인간뿐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흰 공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빨간 공을 굴렸고 흰 공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은 행위자이고 흰 공이 움직인 것은 결과에 해당한다. 리드는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리드는,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의욕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치 않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의욕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이라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리드는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했다.

리드는 ㉡ '기회 원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당시에는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은 오직 신뿐이며, 행위자는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기회 원인은 일상적으로는 마치 원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이다. 리드는 이러한 입장을 경험주의 관점에서 배격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의 의욕과 행위뿐이며 행위에 신이 개입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드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14. 윗글에 나타난 리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닌 존재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 ②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행위자이다.
- ③ 인간의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항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 ⑤ 흙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도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에는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②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는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③ 리드는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친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흙은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서 항상적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겠군.
- ⑤ 흙은 빨간 공과 흰 공이 부딪친 사건이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의 원인이라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것일 수 없다고 보겠군.

1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긍정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와 관련한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의 해결을 위해 리드는 행위자가 기회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을 인간 자신에게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 ⑤ ㉡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한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17. <보기>는 철학자들이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 리드에 따르면 의욕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발휘는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연쇄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고, 의욕에 선행하는 의욕이 무한히 필요해집니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어떤 의욕도 일으킬 수 없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B: ‘의욕의 무한 후퇴 문제’를 제기한 것이군요. 리드는 ㉠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 ① 의욕과 무관하게 정신적 사건이 결과가 될 수 있다
- ②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는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
- ③ 양면적 능력의 발휘와 그 결과로서의 의욕은 구별될 수 없다
- ④ 의욕에 또 다른 의욕이 선행하는 연쇄는 관찰의 범위 내에 있다
- ⑤ 의욕을 일으키는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신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일은 할미 집에 온 다음 해 3월 보름에 할미는 술 팔러 가고, 낭자 홀로 초당에서 수를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날아와 매화 가지에 앉아 울거늘, 낭자가 왈,

“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어찌 혼자 우는가?”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홀연 졸더니, 그 새가 낭자에게 왈,

“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저와 함께 가사이다.”

하거늘, 낭자가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옥 같은 연못 가운데 구슬로 대를 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으며, 주춧돌과 기둥은 만호와 호박으로 만들었고 지붕은 유리로 이었는지라. 광채가 찬란하여 바로 보지 못할네라. 산호로 만든 현판에 금으로 ‘**요지**’라 쓰여 있었으니, 서왕모의 집일너라.

너무 으리으리하여 낭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주저하더니, 문득 서쪽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기이한 향내 진동하더니, 무수한 선관과 선녀들이 용도 타며 봉황도 타며 쌍쌍이 들어가고, 청운(靑雲)이 어린 곳에 옥황상제께서 옥룡이 모는 옥수레를 타고 오셨으며, 그 뒤에 서천 석가여래 오신다 하고 제천 제불과 삼태 칠성과 관음 나한과 보살이 시위하여 오되, 사방에서 풍류 소리 진동하니, 그 위엄 있고 엄숙한 행차와 거동이 일대 장관

이더라. 이윽고 구름이 크게 일어나며 그 속에 백옥교자 탄 선녀가 백년화 한 가지를 꺾어 쥐고 단정히 앉아 있는데, 좌우에 무수한 선녀가 시위하여 오더니, 이는 ㉡ **월궁항아**의 행차러라. 항아가 속향을 보고 왈,

“반갑다, 소아야!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얼마나 겪었는가? 나를 좇아 들어가 요지의 경치나 보고 가거라.”

하거늘, 속향이 항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 집 형상과 으리으리한 모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각양각색의 풍류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한 보살이 젊은 선관을 앞에 세우고 들어와 상제께 뵈오니,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

“태을아, 인간 재미 어떠하며, 소아를 만나 보았느냐?”

그 선관이 땅에 엎드려 무수히 사죄하더라.

항아가 옥황께 여쭙오되,

“소아가 네 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그만하옵서 복록을 정하소서.”

상제 허락하셔서 여래에게 명하셔서 수명을 정하라 하시니, 여래 아뢰되,

“일흔 살을 정하나이다.”

또 북두칠성에게 명하셔서 자손을 정하라 하시니, 칠성이 아뢰되, “아들 형제와 딸 하나를 정하나이다.”

또 남두칠성에게 명하셔서 복록을 정하라 하시니, 남두성이 아뢰되, “두 아들은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가 되게 정하나이다.”

상제 소아에게 명하셔서 ㉢ **반도** 두 개와 **계화(桂花)** 한 가지를 태을선군에게 주라 하시니, 소아가 상제 명을 받들어 한손에 반도를 옥쟁반에 담아 들고, 한 손에 계화 한 가지를 가지고 내려와 태을선군에게 주니, 그 선관이 두 손으로 받으며 소아를 눈여겨보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설 때 손에 낀 ㉣ **옥지환의 진주**가 계화에 걸려 떨어지거늘, 소아가 쥐고자할 차에 벌써 그 선관이 쥐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서서 들어가고자 할 때, 할미 들어와 낭자를 깨워 왈,

“봄날이 곤하거니와 무슨 낮잠을 그다지 오래 자는가?”

하며 깨우거늘, 소저 그 소리에 놀라 깨어 일어 앉으니, 요지의 풍경이 눈에 어른거리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더라.

(중략)

3월 보름에 대성사에 올라가니, 몸이 곤하여 졸려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잠을 들었더니, 꿈에 **부처** 와 이르되,

“오늘 서왕모가 **요지**에서 잔치하니, 그대도 나를 좇아 구경이나 하자꾸나.”

하거늘, 이선이 매우 기뻐 부처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선녀가 무수히 모여 분주하며, 기이한 화각(畵閣)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향내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부처 이선에게 손으로 가리키며 왈,

“북쪽 옥룬대 위에 높이 앉은 이는 옥황상제이시고, 그 뒤에는 삼태 칠성이 모든 별을 거느렸고, 동편 백옥교에는 석가여래 모든 부처를 거느리고 차례로 앉아 있으니, 내 먼저 들어가거든, 그대는 내 뒤를 좇아서 상제를 뵈은 후에 차례로 좌우에 있는 선관들에게 인사를 드리시게.”

이선 왈,